통산 5승 양수진 '미소의 힘'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

합계 6언더파…초대 챔피언 등극
코 성형 후 웃음 늘고 자신감 쑥쑥
부상으로 쇼트게임·퍼트만 연습
대회때 도움…상금랭킹 1위 질주

양수진이 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3'에서 통산 5승째를 거뒀다. 우승을 확정지은 양수진이 마지막 퍼트를 앞두고 18번홀 그린에 올라서며 환호하고 있다. 양수진 우승의 원동력은 '웃음'이다. 사진제공 | KLPGA

웃음이 그녀를 춤추게 했다.

양수진(22·정관장)이 벚꽃처럼 활짝 웃었다. 양수진은 21일 경남 김해 가야골프장 신어·낙동코스(파72·666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3'(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6언더파 206타로 우승했다. 개인 통산 5번째 우승이자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 됐다.

짜릿한 경기였다. 3타 차 2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양수진은 선두였던 홍진의(22·롯데마트)가 주춤하는 사이 차곡차곡 버디를 만들어가며 간격을 좁혔다. 9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공동 선두로 올라선 양수진은 10번홀에서 다시 버디를 낚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선두를 내주지 않고 끝까지 정상을 지켰다.

양수진은 요즘 웃는 일이 잦아졌다. 이날도 경기 중 응원하는 팬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보내며 밝게 웃었다. 웃음이 많아진 이유가 있다.

양수진은 올해 들어 부쩍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지난겨울 코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후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칭찬이 자자하다. 여자에겐 가장 듣기 좋은 말이다.

웃음은 긍정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챔피언조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긴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오늘은 웃으면서 긴장이 풀렸다. 또 많은 팬들이 응원해준 덕분에 즐거웠다"라는 양수진은 "'예뻐졌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더 자주 웃게 된다"며 더 크게 웃었다.

동계훈련에서 있었던 일도 그를 웃게 한다.

양수진은 지난겨울 베트남에서 동계훈련을 가졌다. 훈련 중 왼쪽손목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다. 깁스까지 해야 하는 부상이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 됐다.

양수진은 "손목을 다쳐 2주 정도 깁스를 했다. 그 때문에 샷 연습을 하지 못하고 쇼트게임과 퍼트 훈련만 했다. 그랬더니 올해 쇼트게임과 퍼트에 자신이 생겼다"며 멋쩍게 웃었다.

양수진에게 웃을 일이 하나 더 생겼다.

시즌 4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신고하면서 상금랭킹 1위(1억4041만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에서도 1위(79점)로 나섰다.

양수진은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우승했다. 지금의 상태를 잘 유지하면 5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상금왕에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2008년 데뷔한 양수진은 2010년 상금랭킹 2위에 오른 게 가장 좋은 시즌 성적이다. 아직 단 한 번도 타이틀을 손에 잡아보지 못했다. 올해 기회가 왔다.

한편 홍진의는 이날 2타를 잃으면서 합계 3언더파 213타로 2위에 만족했다. 김혜윤(24·KT)과 윤슬아(27·파인테크닉스), 홍다경(23)이 공동 3위(이상 1언더파 215타)에 올랐다.

김해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대회때마다 구름 갤러리 경남 골프열기 살아있네

대회 마지막 날 8000여명 운집

"양수진 파이팅! 홍진주 짱!"

부산·경남은 골프 열기가 뜨겁다. 야구나 축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대회가 열리더라도 갤러리가 보장돼 관계자들을 흐뭇하게 만든다.

21일 경남 김해의 가야 골프장에서 열린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도 뜨거운 골프열기는 그대로 느껴졌다.

오전 일찍부터 갤러리가 몰려왔다. 갤러리 이동을 위해 배차된 버스는 오후까지 바쁘게 움직였고, 클럽하우스 주변에 마련된 행사 부스는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잠깐 사인회와 사진촬영 등 행사라도 열리면 더 많은 갤러리가 운집했다. 21일 양제윤과 안신애의 팬 사인회가 진행되자 한꺼번에 100여 명의 갤러리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갤러리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사인회를 참석하는 선수의 표정에서도 밝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이날 하루 골프장을 찾은 갤러리는 약 8000여명. KLPGA 투어의 평균 관중수를 크게 웃도는 숫자다. 보통은 2000~3000명(3라운드 합계)만 입장해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압도적인 흥행 성적표다.

유독 부산과 경남 지역의 골프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높은 골프인구의 비율이다.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김해 등 대도시가 발달해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많다. 인구대비 골퍼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2012년 골프장 내장객 수에서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홀 당 내장객 수에서는 경기도와 전남을 제치고 전국 1위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골프대회에 대한 갈증이다. 2011년에는 경남지역에서 단 1개의 골프대회도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 서울경제여자오픈과 한일 여자 프로골프 국가대항전 2개 대회가 열렸다. 해마다 10여 개의 대회가 열리는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드물게 개최되다보니 대회가 열릴 때마다 구름 갤러리가 몰려든다.

부산에서 아들과 함께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찾아온 한 골프팬은 "골프대회를 자주 볼 수 없어 아쉽다. 대회가 자주 열려 화끈한 경기를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 | 주영로 기자

박인비 "루이스, 골프여제 자리 넘보지 마"

美 LPGA 롯데 챔피언십 공동 4위
루이스는 9위…세계랭킹 1위 수성

박인비가 미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 15번홀에서 드라이버샷을 하고 있다. 코올리나(미 하와이주) | AFP연합뉴스

박인비(25·스릭슨·사진)가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장기집권에 시동을 걸었다.

박인비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코올리나 골프장(파72·6383야드)에서 열린 미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17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합계 13언더파 275타 공동 4위에 올랐다.

16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9.28점을 얻어 스테이시 루이스(미국·9.24점)을 0.04점 차로 따돌리고 생애 처음 지존의 자리에 오른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서 치열한 순위 싸움을 예고했다.

출발은 좋지 않았다. 1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에 그치며 공동 27위 머물렀다. 경쟁자 루이스는 5언더파 67타를 치며 공동 6위로 앞서 나갔다.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 날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세계랭킹 1위 자리도 지킬 수 있게 됐다. 루이스는 공동 9위에 그쳤다. 2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수성한 박인비는 장기집권의 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김인경(25·하나금융)은 이날만 7타를 줄이면서 박인비와 함께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최나연(26·SK텔레콤)은 6언더파 66타를 몰아치며 공동 6위(11언더파 277타)로 경기를 마쳤다. 10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효주(18·롯데)와 리디아 고(16·한국이름 고보경)은 나란히 공동 9위(10언더파 278타)에 올랐다.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은 리젯 살라스(미국·이상 19언더파 269타)과 연장전 끝에 우승했다. 우승상금은 25만5000달러(약 2억 9000만원)이다. 주영로 기자

건축 거장 5인이 빚은 '아트빌라스'로 옵서예

입회금 환급·골프장 이용 등 혜택

국내외 건축 거장 5인이 참여해 만든 '아트빌라스'(사진)가 제주의 새로운 명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들어선 아트빌라스(Art villas)는 현대 건축계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국내외 건축가 5명이 디자인에 참여해 건설 단계부터 화제가 됐던 곳.

5인의 거장이 탄생시킨 아트빌라스는 A~E까지 5가지 블록으로 각 건물마다 제주도의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어 집이 아닌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가지 타입은 각기 다른 장점과 특징이 담겨 있다.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한 건축가 승효상 씨가 디자인한 A블록은, 산과 바다, 정원을 품에 안은 듯 뛰어난 조망을 확보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동쪽으로는 한라산, 서쪽으론 산방산, 남쪽으로 중문관광단지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B블록은 프랑스 출신으로 세계 3대 건축가로 알려진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했다. 제주의 밭과 해안선, 폭포, 주상절리 등 독특한 자연환경을 건축 구성의 기본 요소로 도입했다. C와 D블록은 건축가 이종호 씨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겐코 쿠마 도쿄대 건축학과 교수의 작품이다. C블록은 모던한 객실, 심플하면서도 알찬 공간 활용과 편의성을 높였다. 4m 높이의 통유리를 배치해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한다. D블록은 안락한 느낌의 실내구조와 일본 건축가의 섬세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명 건축설계회사인 DA글로벌그룹이 디자인한 E블록은 한라산의 경관과 한국의 전통 조각보 패턴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아트빌라스는 명품 리조트에 걸맞은 풍부한 회원 혜택을 제공한다. 입회금 전액은 7년 후 환급을 보장한다. 각 타입별 풀 구좌 또는 다구좌(1/10) 분양 중이다. 롯데스카이힐 제주CC와 김해, 성주, 부여 골프장을 비롯해 경기도 안성의 마에스트로 골프장(풀구좌 회원)에서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주영로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채무승계의 상속 순서

1. 배우자및 자녀
2. 남편의 부모
3. 남편의 형제
4. 남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방계혈족이란? 아버지의 부계 및 모계의 3촌 조카와 사촌형제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을 포함하고 이모, 고모, 외삼촌 등을 총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대출금, 다가오는 이자 상환일, 부담스러운 원리금 준비의 걱정 채권 추심과 독촉장, 가려서 받는 전화!

개인회생및 파산에 관한 종합 법률 상담

▶ 내가 평생동안 모은 재산(돈)만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 이자 100%탕감! 원금 최고 90%탕감! 신속.정확한 처리! 변호사 수임료(회생.파산) 전액 분납(5개월) 가능!

개인회생 요점 정리

보 기	개 인 회 생
지원 대상	▶ 신용채무 5억원이하,담보채무 10억원이하 (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대부업(대형및 중소형 포함), 사채, 일수, 보증채무, 상거래대금, 개인간차용금, 통신요금등) ▶ 과거 신용불량및 현재(미래) 신용불량 예상자등
예 상 대상자 수	2013년 2월 기준 : 약 495만명(322만명+173만명) (3곳 이상 다중 채무자및 미래 잠재적 채무자 포함)
지원 내용	이자 100% 탕감, 원금 최대 90% 탕감
신청 기관	관할 법원 (변호사,법무사 상담가능)
상환 기간	최단 3년 ~ 최장 5년
매월 변제 금액	본인 소득 – 최저생계비 = 매월 변제금액 예시 : 본인소득 160만원 – 2인가구 = 매월 약 14만원
채무 탕감에서 제외	국세, 지방세, 벌금, 과태료, 근로자의 임금및 퇴직금, 재해보상금, 고의및 악의등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제외

• 1차 필요서류(동사무소)
– 등본(1), 초본(1, 이사경력포함),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주민증사본(앞, 뒤), 인감증명(채권자수 + 4장), 인감도장(약3주, 사무소보관)

고객 맞춤 전국 출장 서비스 제공

기각시 변호사 수임료 100% 환불

▶ 상담및 진행 절차
1. 변호사님 또는 사무장님의 무료 전화 상담
2. 개인회생및 파산의 자격 여부 확인
3. 서류 배송 직원이 고객 요청 장소로 요청일에 전국 무료 출장
4. 서류 배송 담당 직원이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인의 관련 서류 접수
5. 부채증명및 각종 서면 작성후 관할 법원에 접수
6. 사건 번호 부여및 정지,금지명령신청등의 순서로 신속히 진행

☞ 서류 배송 담당 직원 방문없이 고객님께서 서류를 우편으로 직접 보내주셔도 됩니다.

▶ 파산면책시 뜬소문들
☞은행 거래를 못한다.
☞보험 가입을 못한다.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
☞직장에서 잘린다.
☞사업자등록증을 못낸다.
☞해외 여행을 못간다.
☞평생 파산자가 된다.
☞취업을 못한다. 등

민사사건,형사사건,이혼 및 각종 가사사건,행정소송,고소장 등 각종 법률 무료상담 (서울,경기) / 개인및 법인-회생,파산 (전국가능)

태양합동변호사사무소 전국 대표 ☎1661-7249 처리사고